

## SDF 시즌 2 <SBS D 포럼 2018> 성공적 출범!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화두, 정면으로 내세우는 SBS의 또 다른 플랫폼 탄생!



SDF 시즌 2의 첫 포럼인 SBS D 포럼이 지난 2일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SBS D 포럼 2018은 지난 2004년부터 SBS의 대표 사회공헌 지식나눔 프로젝트였던 서울디지털포럼과 미래한국리프트를 계승 발전시킨 프로젝트다.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화두를 앞세운 올해 SDF에서는 미투, 갑질 폭로 등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존 관행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시민사회의 변화를 정면으로 다뤘다. 박정훈 사장은 개막사에서 SDF의 이름을 SBS D 포럼으로 바꾸면서 D의 의미를 Dream, Diversity, Democracy, Data 등 한 단어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열어둔 것은, 앞으로 나타날 그 어떤 주제도 용기 있게 다루겠다는 SBS의 다짐이라고 밝혔다.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조희정 서강대 사회과

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선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뤄진 SDF 연구팀은 4개월간의 연구에서 지금의 시민사회 변화가 정치민주화에서 ‘생활 민주화’로 넘어가는 과정이며, 대의 정치에 실망한 개개인들이 촛불혁명 이후 갖게 된 효능감과 소셜미디어 같은 IT를 기반으로 ‘개인권력’이 부상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전했다. SDF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아, 그동안 국가의 성장을 위해 희생해왔던 개인들에 주목하면서, 더는 특정 조직이나 단체, 더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 개인이 이용당하거나 무시당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부당함에 용기를 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모색하려 했다. 미투 1년을 맞아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의 성폭력을 폭로해 글로벌 미투를 일으킨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인 할리우드 배우 로즈 맥고완과 국내 문단 내 성폭력에 미투한 최영미 시인, 또 경제 권력의 갑질을 폭로한 박창진 대한항공직원 연대 공동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그런가 하면 혐오시위 저지 운동 ‘카운터스’를 통해 일본의 혐오 표현 방지법 개정을 이뤄낸 일본의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모욕에 참지 않고 용기를 내 소송을 진행 중인 래퍼 키비다까지 힘들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SDF는 귀를 기울였다. 또 기술 영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지는 알고리즘들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린 ‘대량살상수학무기’의 저자 캐시 오닐, 기업 분야

에서는 개인이 시민으로서뿐 아니라 소비자로서, 또 직장인으로서도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위해, 또 직장 내 구성원 하나하나의 권리를 위해 조직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크레이크 샹크 글로벌 정책 총괄부사장이 최근 기업들이 크게 주목하는 화두, ‘책임 혁신’을 강조했다.

첫발을 내딛은 SBS D 포럼은 규모나 외연의 치장보다는 변화하는 시대, 우리 사회가 꼭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같이 논의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 그래서 올해 포럼은 연구발표, 강연, 패널 토의, 대담, 북콘서트 등 방식도 다채롭고, 래퍼에서부터 배우, 시인, 대학생, 교수, 기업인, 작가, 국민가수까지 세대와 분야, 성별과 직종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사들이 무대에 올랐다. 또 방송사의 포럼이라는 특징점을 살리기 위해 영상 LED로 포럼장을 270도 감싸고, 래퍼 빈첸에서부터 김창완 밴드까지 “새로운 상식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화두 아래 음악과 토크가 어우러진 콘서트 형식을 차용함으로써 다른 언론사 포럼과는 확실히 차별화했다. VIP석을 뒤로 뺀 것도 새로운 시도였다. 첫 SBS D 포럼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SBS 윤세영 명예회장과 윤창현 노조위원장이 함께 참석한 SBS 2018년의 첫 공식 자리였다.





## 장나라, 최진혁, 신성록... 명품 배우 총출동

김순옥 작가×주동민PD 중독성 강한 명품 드라마 예고



새 드라마스페셜 <황후의 품격>이 11월 21일(수) 첫 방송된다. <황후의 품격>은 어느 날 갑자기 신데렐라가 돼서 황제에게 시집온 명랑발랄 뮤지컬 배우가 궁의 절대 권력과 맞서 싸우다가 대왕대비 살인사건을 계기로 황실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는 이야기다. <언니는 살아있다>, <왔다! 장보리>, <아내의 유혹> 등을 통해 독창적인 필력을 선보인 김순옥 작가와 <리턴>으로 감각적인 연출력을 인정받은

주동민PD가 손잡은 작품으로, 장나라-최진혁-신성록-신은경-이엘리아 등 탄탄한 연기력의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가 '입헌군주제 시대'라는 설정 하에 대한제국과 황실을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에서 장나라는 황제 이혁을 고등학교 때부터 동경해온 허당스럽지만 귀엽고, 정의로우면서도 화통한 무명 뮤지컬 배우 오씨녀 역을 맡았다.

최진혁은 한번 시작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준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안 듣고, 직진만 하는 나왕식/천우빈 역을 맡았다. 엄마의 소원대로 황실 경호원이 되기 위해 운명을 다 걸고 노력하여 결국 황실 경호원의 자리를 꿰차는 인물로, 황후가 되는 장나라와 황제 신성록 사이에서 사랑과 복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극적인 전개를 이끈다.

대한제국 황제 이혁 역은 신성록이 맡았다. 이혁은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언변, 사람을 휘어잡는 마성을 지녀 국민들의 추앙을 받지만, 내면은 비리와 부패에 찌들어 있다. 여성 편력으로 늘 여자를 바꾸면서도 죽은 황후를 못 잊고 그리워하는 로맨티스트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한 인물이다.

이엘리아는 황실 대변인 민유라 역을 맡았다. 민유라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로, 황실은 물론이고 황제 이혁(신성록)과 뗄 수 없는 관계로 극의 한 축을 이끌어간다.

신은경은 황제 이혁의 어머니이자 황실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실세 중의 실세 태후 강씨 역으로 출연한다.

그밖에 태황태후 조씨는 박원숙이 맡아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산하며, 이희진은 콤플렉스 덩어리에 애정 결핍증을 갖고 있는 소진공주 역으로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참신한 설정과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전개,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황품 라인'으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황후의 품격>은 11월 21일(수) 밤 10시에 방송된다.

## 2018 창사특집 대기획 <운인가 능력인가 - 공정성 전쟁> 11월 11일, 18일 방송

운칠기삼... 운이 중요한 환경에서 인간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해왔나?

2018 창사특집 대기획 <운인가 능력인가 - 공정성 전쟁> (연출: 류영우)이 11월 11일, 18일(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된다. <운인가 능력인가 - 공정성 전쟁>은 2년 전 제기된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다. 2년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부모도 능력이야"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 특별한 '능력'을 갖지 못한 청년들은 지금 공공기관과 공기업 취업에 몰려들고 있다. 그 수만 대략 44만 명, 한 해 수능을 치는 학생들의 3/4이다. 그리고 그 무한경쟁은 다시금 돌고 돌아 능력 있는 청년들을 불운하게 만들고 있다. 또 2년 전 구의역에서 사고를 당한 김 군의 죽음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 죽음을 외주화하지 말라"는 질문을 세상에 던졌다. '능력'을 타고 나지 못한 이들은 죽음에 가까운 삶을 살아야 할까? '능력'을 보이지 못한 그들의 운을 탓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는 불운한 상황은 아닐까? 정유라와 김 군이 세상에 던진 질문은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해법들 앞에서 충돌하고 있다. 그것은 '공정성'이란 이름으로 청년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무엇이 운이고, 무엇이 능력인지, 이 다큐멘터리는 다시금 묻는다.

1부 '불운한 자들의 도시'에서는 불운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등장한다. 그리고 그 분노를 만든 진짜 원인이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공채시험' 제도 때문은 아닐지 생각해 본다.

2부 '불운을 피하는 법'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로 발휘하고 살기 위해 불운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인류학적 고민과 최신 신경과학과 물리학적 실험 결과물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의 사례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성공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한 개인이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본다.

류영우 PD는 "이탈리아 연구진이 1,000명의 인생을 40년

간 수백 차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성공을 만드는 것은 능력보다는 운이었다. 그러나 인간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운이 중요한 환경에서 불운을 극복하는 다양한 해법을 찾았다. 이번 창사특집 대기획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길 바라는 모든 이들과 또한 누군가의 반칙으로 불운해지지 않으려고 분노하고 공정성에 예민한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큐"라고 밝혔다.

# 유재석과 8인의 스타들이 펼치는 미스터리 스릴러

## 아름다운 시골 마을의 정취는 담~ 11월 9일(금) 첫 방송



정이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스터리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감과 함께 시골의 한적하고 푸근한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가을 마을'이라는 타이틀대로 촬영장소가 실제로 가을 정취가 담백 담긴 마을이기 때문이다. 스타들이 자연에서 직접 채집한 재료로 요리하는 모습도 재미 요소 중 하나다.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내용과 농촌 라이프를 다룬 내용의 완급 조절로 지루할 틈 없는 예능을 만들겠다는 게 제작진의 의도다. 라인업도 독특하고 새롭다. 예능 신생아에서 예능 대세로 떠오른 블랙핑크의 제니를 비롯해, 예능에서는 보기 힘든 배우 김상호와 강기영, 손담비, 임수향, 송강이 출연한다. 여기에

예능 치트키 양세형과 장도연이 가세하면서 기대감이 더 커졌다. 실제로 9명 출연자 간의 캐릭터 조합과 케미가 좋아서 현장에서 웃음의 시너지가 났다는 후문이다. <미추리> 멤버들은 아직도 첫 녹화의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다. 출연자들은 사전에 아무것도 전달받지 못한 채 촬영장에 도착했고,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반전이 공개되며 혼란에 빠졌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름다운 가을 마을' 미추리가 알고 보니 '미스터리 추적 마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출연자들의 반응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온라인에 공개된 예고편의 반응도 뜨겁다. 스타들의 꾸미지 않은 사실적인 모습들이 예고에 담기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스타의 모습을 본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미추리의 비밀이 끝까지 공개되지 않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를 거듭할수록 멤버들의 추리력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재미가 가속화될 <미추리>는 11월 9일(금) 밤 11시 20분 첫 방송된다.

유재석과 8인의 스타들이 미스터리 추적 마을에서 함께하는 '24시간 시골 미스터리 스릴러 예능' <아름다운 가을 마을 - 미추리>가 11월 9일(금) 첫 방송된다. <런닝맨>을 연출했던 정철민 PD가 만드는 <미추리>는 '미스터리 추적'이라는 새로운 소재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예

# 스타들의 크리에이터 도전기 **가로채! 널**

## 강호동\*양세형 꿀조합에 빅뱅 승리 합류 - 11월 15일(목) 첫 방송



<가로채! 널>(연출: 조문주, 박용우, 이하 <가로채널>)이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다. 지난 추석 파일럿으로 방송되었던 <가로채널>은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연하는 프로그램으로, 톱 MC 강호동과 예능 대세 양세형이라는 신선한 조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스타들이 개인 채널을 열어 구독 경쟁을 했던 파일럿과 달리, 정규 편성이 된 <가로채널>은 '가로채널'이란 하나의 채널을 통해 스타들이 100만 구독자를 목표로 힘을 합칠 예정이다. 새롭게 돌아오는 <가로채널>에서도 강호동과 양세형의 꿀조합은 계속된다. 강호동이 가장 잘하는 '대결'을 주제로 제작한 콘텐츠 <강.대. 강호동의 하찮은 대결>은 정규 편성에서도 계속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콘텐츠로 제작했던 양세형의 <맛장.맛

집 장부>는 새로워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강호동, 양세형과 함께 채널을 오픈하여 시청자들의 시선을 가로챈 세 번째 크리에이터는 AOA 설현과 찬미로 결정됐다. 영화 <안시성>은 물론 최근 <품나게 먹자>에서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상큼한 매력을 선보였던 국민 대세 설현과 이미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찬미는 둘이 힘을 합쳐 채널을 공개한다. 이들은 기획회의 때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한편, 최근 빅뱅의 승리가 <가로채널>의 고정 멤버로 합류를 결정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추석 파일럿 때부터 함께한 개국공신 승리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심을 끄는 가운데, 100만 구독자 달성을 향한 스타들의 크리에이터 도전기 SBS <가로채! 널>은 11월 15일(목)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된다.

# SBS와 아프리카TV, e스포츠 공동사업

## 합작 법인 설립

### e스포츠 전문 방송 구축을 통한 국내외 e스포츠 활성화 목표

SBS와 아프리카TV는 e스포츠 공동 사업을 위한 합작 법인 (주)에스비에스아프리카티비(SBS-africaTV Co., Ltd)를 11월 1일 자로 설립했다. 양사는 이번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 향후 e스포츠 콘텐츠 제작, 방송, 사업 등을 전개하며 이를 위한 케이블방송, IPTV 채널 PP사업과 온라인 사업(www.sbsafreecatv.com) 등을 통해 국내외 e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채널 명칭은 법인명과 동일한 SBS-afreecaTV이다. 합작 법인은 SBS와 아프리카TV가 50:50으로 동일 지분을 보유하고 양사가 임명하는 공동 대표(서수길, 김용재) 체제로 운영된다. 아프리카TV는 e스포츠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운영 등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SBS는 지상파 및 케이블TV 부문의 서비스를 비롯한 e스포츠 콘텐츠의 글로벌 퍼블리싱을 지원한다. 김용재 대표이사는 "e스포츠 국내 온라인 최대 플랫폼인 아프리카TV와의 협력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콘텐츠 및 플랫폼 제공이라는 지상파의 미래 과제를 위한 의미가 큰 한걸음이다. SBS-AfreecaTV는 e스포츠를 중심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다양한 소비 콘텐츠까지 콘텐츠/플랫폼 확대 성장의 비전을 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전 세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다

<창사특집 2018 희망TV SBS> 11월 16일(금), 17일(토) 방송

SBS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창사특집 2018 희망TV SBS>가 11월 16일(금), 17일(토) 이틀간 방송된다.

<창사특집 2018 희망TV SBS>는 최고의 육아 아빠를 찾아라! 특집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 아프리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라이온킹 프로젝트>와 스타들의 아프리카 봉사기, 희귀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국내 환아의 다큐멘터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낸다.

특집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에서는 MC인 배우 박진희와 박찬민 아나운서, 다동이 아빠 양동근, 육아 엄마 김미려, 방송인 페트리,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애 사무총장,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이 함께 행복한 육아 아빠들의 모습을 통해 아빠 육아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시청자 SNS 투표를 통해 톱톡 튀는 육아 비법을 가진 2018 최고의 육아 아빠를 선정한다.

아프리카로 봉사를 떠난 6인의 스타들의 이야기도 공개된다.

배우 박상원은 르완다 내전 난민 출신 의사 미래일을 만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후원과 나눔의 중요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라이온킹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배우 남보라는 케냐로 떠나, 쓰레기마를 오케스트라 '게토 클래식'의 음악 영재들과 뭉게 지역 육상 영재들의 꿈을 응원한다.

배우 김인권은 산모의 엽산 부족으로 기형아가 태어나는 마다가스카르 오지마을을 찾아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물하고, 배우 장희진은 에티오피아에서 가난 때문에 방직공장에 팔려온 아이들과 트라코마로 시력을 잃어가는 아이들을 위로한다.

배우 오윤아는 1년 전 최악의 산사태가 일어났었던 시에라리온에 가서,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사람들의 상처와 열악한 환경을 직접 보고 마음 아파했다.

배우 이소연은 '아프리카 차드 병원 24시'를 통해 차드의 열



악한 의료 현실과 매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아이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전한다.

이외에도, '주사 한 번에 1억 4천만 원' 유일한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치료받지 못하는 희귀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국내 환우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단돈 100원으로 볼리비아에 학교를 세운 남자 '한꽃거지'의 즐거운 기부 이야기, 꿈과 함께 커나가는 케냐 삼리스 희망학교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 따뜻한 나눔으로 지어진 지역아동센터 소식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 오기현, 이윤민 PD 통일언론상 대상 수상



<SBS 스페셜>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를 연출한 오기현, 이윤민 PD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공동으로 시상하는 제24회 통일언론상 '대상'을 수상했다.

통일언론상 심사위원회는 '84년생 김정은과 장마당 세대'가 북한 경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생생한 증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 이유와 그 진정성을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 현재 변화된 북한의 모습을 알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준 점을 높이 평가했다.

## 이현정, 전형우 기자 이달의 방송기자상



보도국 시민사회부 이현정, 전형우 기자가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2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 부문을 수상했다.

이현정, 전형우 기자는 '성범죄 피해자 실명 게재' 실태 연속 보도로 관보로 인해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실태를 지적했다. 해당 보도 뒤 행정안전부는 관보 규정을 개정해 정보 유출을 막고 인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SBS 스페셜> 강범석 PD 이달의 PD상



<SBS 스페셜> '자영업공화국의 눈물'(연출: 강범석, 촬영: 강진선, 작가: 박은영)이 한국PD연합회가 주는 이달의 PD상을 받았다.

TV 시사다큐부문 수상작인 <SBS 스페셜> '자영업 공화국의 눈물'은 자영업자의 시선으로 한국 경제를 들여다 본 다큐멘터리다. 심사위원회는 "IMF 이후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 주목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했다"라고 평가했다.

## <SBS 스페셜>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



<SBS 스페셜>이 10월 25일(목) 조선포에서 열린 '2018 한국광고주대회 광고주의 밤' 행사에서 '광고주가 뽑은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보도교양 부문 수상작 <SBS 스페셜>은 'PD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화두'라는 슬로건 아래, 이성적 논리와 감성적 표현으로 감동과 화제를 일으키는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지향하고 있다. 주제도 '권력과 거짓말'(504회), '남북정상회담특집'(508회), '행복한 부부생활을 위한 결혼 연습'(512회), '아이와 여행하는 법'(520회) 등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이슈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조명하고 있다.

## 2018 희망TV SBS 청송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완공



10월 29일(월) '희망TV SBS'는 경북 청송군 안덕면에서 '청송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완공식'을 진행했다.

완공식에는 윤경희 청송군수,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 이영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부회장 등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도움을 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완공된 청송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는 '희망TV SBS'가 추진하는 '농어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의 6번째 결과물이다. 교육기관 및 아동보호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 아동들이 방과 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청송군이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1억 원의 건립 기금을 기탁했으며, SBS Golf와 KLPGA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2016, 2017 드림워드버디 캠페인'을 통해 1억 원의 기금을 모았다. 또한 SBS도 2억 1천만 원의 건립 기금을 기탁했다. 청송 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실, 조리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아동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퇴직 사우 창사기념미 지급제도 변경 안내

SBS 퇴직 사우에 대한 창사 기념미 지급 제도가 내년부터 변경된다. 사원과 임원 구분 없이 퇴직 후 10년간 동일하게 40kg이 지급되며(기존 임원 80kg/사원 40kg), 지급 대상은 10년 이상 근속한 사원과 퇴직 임원이다.